사·부·대·중

삶의 본질 깨닫는 기도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7일 대학수능 시험이 있었다. 전국 유명 기도처에는 아들 딸이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련과 시험의 장이던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부쩍 자기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험 등의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자세부터가 다르다. 자연 모든 일들에 기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 어디 입학 시험 뿐이겠는가. 일상에서 마음 졸이며 희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즉 인고(忍苦)의 세계라 하지 않던가.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이다. 만약 기도하는 신행(信行)이 없다면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우리네가 얼마나 방황을 하게 될까 싶다. 그런데 기도는 단지 목적을 성취한다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고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며 자신을 키우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리는 연화장 세계로 한 발 다가서고, 미혹한 중생심을 통해 정각을 깨치기 위해서 말이다. 눈을 돌려보면 우리들의 절절한 희구의 표현이 세월을 넘어서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다 간절한 소원과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기도는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목적을 위한 자아중심의 기도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통한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의 참회와 발원, 축복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잊고 지낸 자기자신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진리와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주와 진리가 둘이 아니고 나와 하나라는 깨달음과 체험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 우리는 기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목탁소리

사찰예산회계법 철회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불교 개신교 천주교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종교NGO 네트워크가 5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 단체가 출범하게 된 것은 종교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발족기념 심포지엄에서도 "현재의 한국 종교는 자본주의에 굴복한, 혹은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모습"이라는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는 얘기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일 개원한 제152회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했던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을 자진 철회했다. 일부 스님들의 반발이 있고, 법안을 더욱 세밀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철회했다는 얘기지만 왠지 뒷맛이 씁쓸하다.

삼보정재의 누수를 방지하고, 그동안 몇 차례 발생했던 공금횡령사고를 막아보자는 것이 사찰예산회계법의 제정 취지였다.

불자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주먹구구식 사찰운영 관례가 사라지고, 공금횡령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일부의 주장처럼 '종교조직인 만큼 형사처벌같은 외부적 제재이전에 내부예방장치를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라고 해서 비리가 발생해도 남의 눈을 의식해 무조건 감싸주고 무마해 버린다면 결국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 만의 하나 재정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도 대신 누수된 정재를 변상할 수 없으며,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겠다면 또 소를 잃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 다음 종회에서는 꼭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독거노인 집수리…찜질방…이동목욕…서예교실

교계복지관 특성프로그램 '호응'

어느 곳을 가든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외로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질병으로 직업을 잃고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 신체적 불구로 활동이 부자유스럽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복지관은 바로 이들을 보살펴 주고 지탱해주는 곳이다. 현재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40여 곳. 복지관 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보살 정신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다.

1천여 노인 점심공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9평짜리 영구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는 김인술(67)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1시30분이면 집에서 1km 떨어진 덕유사회복지관 식당으로 향한다. 무료식사와 바둑을 즐기는 게 일과가 됐다. 초겨울과 다름없는 요즘엔 월요일마다 복지관에 설치된 찜질방에 들려 샤워를 하며 몸을 녹이고 피로도 푼다.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어렵게 키우던 이선미(37) 씨는 충남 공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로 이사온 뒤로 아들 걱정이 사라졌다. 인근에 있는 금강사회복지관의 초등학생 학습지 강좌를 이용하면, 방과 후에 아이가 대학생 형 누나의 도움을 받으며 무료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강좌는 어린이 학습지로 유명한 웅진싱크빅을 후원받아, 공주영상정보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지도하니 믿음직하다.

부천이나 원주의 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있는데, 두 복지관 모두 지역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찜질방'이나 '학습지 강좌'를 특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예는 비단 두 복지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지하 1층에 있는 200여 평 넓이의 무료급식소에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혼자 살거나 생활보호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1천여 명이 나와 점심을 먹고 있다. 부산 개금사회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장판이나 도배는 기본이고, 지붕을 고치고 문턱을 없애는 구조변경까지도 해주고 있다.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결손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에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대아동에 온정을

경북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경북 일대에서 유일하게 학대아동쉼터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이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대단해 노인들의 위안처가 되고 있다.

서울 낙동사회복지관은 장애아와 정상아 합동교육프로그램이 유명하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장애아와 정상아를 분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곳에서는 함께 교육한다. 장애아나 정상아들이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복지관의 방침에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당초 걱정과는 달리 정상아 부모들의 항의도 거의 없다.

서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경북 문경모전사회복지관, 인천시불교사회관 등의 이동목욕서비스가 자랑거리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이 가정을 찾아 목욕뿐 아니라 혈압측정 등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해주고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관마다 불우청소년 등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세탁서비스와 안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교양, 취미, 기능 강좌 등을 마련, 이웃들의 삶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오종욱 · 강유신 기자



◇부산 개금사회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연간 1천9백여 만원의 후원금을 확보, 관내 독거노인들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다.

◇불교복지관의 특성프로그램

복지관	전화번호	특성프로그램
개금사회복지관	051-893-5034	독거노인 주택수리
공창종합사회복지관	051-363-2063	결손가정자녀 방과 후 교육
금강사회복지관	041-856-6110	초등학생 학습지 지도
금오종합사회복지관	054-458-0230	학대아동 쉼터
길음사회복지관	02-965-0161	노인 우울증 예방치료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0	장애아 및 정상아 통합교육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3-476-7700	알콜중독 재활교육
덕유사회복지관	032-325-2161	노인 찜질방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02-3494-4755	이동목욕
매화종합사회복지관	031-393-3677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2-8131	이동목욕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장애인 정보화 교육
문경모전사회복지관	054-555-0108	독거노인 주택수리
문수종합사회복지관	061-652-4242	중증장애인 생활보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042-633-1141	시각장애자 자활교육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37-8052	노인주간보호실
심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033-573-6168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송굉종합사회복지관	062-941-8248	소년소녀가장 지원
안양노인복지관	031-455-0551	해울학교 운영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컴퓨터 에어로빅
서울노인복지센터	02-739-3249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용호종합사회복지관	0551-628-6737	치매노인 주간보호
우신종합사회복지관	062-266-3853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원종종합사회복지관	032-677-0108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1351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인천시불교사회복지관	032-868-0048	초중고 결식학생무료 급식
지양사회복지관	02-458-1664	심리극으로 청소년 지아형성
중리종합사회복지관	055-231-8017	치매 및 중풍 노인 주간보호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6	한문 서예교실
학산사회복지관	054-248-6165	독거노인 화변기 설치
한솔종합복지관	031-716-4215	경로당 순회 추억영화 상영

복지관 초겨울 행사 김장김치에 자비를 싣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증장애인 세대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혹독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이 다가온다. 김장을 담그는 것부터 연료비를 마련하는 것까지 이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고계 복지관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각 복지관별로 김장김치, 난방연료 생필품 등을 나누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들 복지관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각 가정에 김장김치 등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결손 어린이 및 중증장애인 250가구에 김장을 담가줄 예정이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서울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 부산 용호사회복지관,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 등도 적게는 30여 세대에서 많게는 500여 세대에 이르기까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김장 나누기 행사와는 별도로 '난방연료 10리터 보시' 운동도 함께 벌인다. 인천시불교사회관은 '결식아동돕기 1일 찻집', 안양노인복지관은 '생필품 제공',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목도리 나누기' 등도 펼친다.

오종욱 기자

장인의 혼이 담긴 목조각작품
성불조각원에있습니다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범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문의전화: 033-263-1102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